

# 조동사 do의 기원에 대하여

이 필 환  
(호원대학교)

Lee, Pil-Hwan. 1999. The Origins of the Dummy Auxiliary *do*. *Linguistics* 7-2, 315-334.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origins of *do* as an auxiliary verb and its regulation. Prevailing theories, like Ellegard(1953), Traugott(1972), Denison(1985, 1993a), among others, link the periphrastic auxiliary *do* historically with Old and Middle English causative *do*. But there are several views on how the causative could be developed into an auxiliary with neutral or empty meaning. It is shown that the most persuasive theory is Denison's(*ibid.*) assumption that causative *do* was changed to some aspectual marker signifying perfection or completion in Middle English and then this aspectual marker was reanalyzed as a true auxiliary, on the analogy of the modals. It is also discussed that there were several factors such as dialect, register, phonology, foreign influence, besides syntax, as the circumstances of the regulation of *do* in early Modern English. (Howon University)

## 1. 머리말

의문문, 부정문 등을 나타내는 표시로,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do*를 사용하는 것은 현대영어의 특이한 현상이다. 고대어나 중세어까지만 해도 *do*는 조동사가 아니었다. 다른 게르만어나 여타 인도-유럽어와 비교할 때도 이 점은 독특하다. 현대영어에서의 *do*동사가 쓰이는 용법은 ('doing action'의 의미를 가진 어휘 동사(a lexical verb)로서의 용법을 제외할 때) 다음과 같다:

- (1) Max *didn't* see the car. [부정(Negation)]
- (2) a. *Did* Max see the car?  
b. Scarcely *did* Max see the car (when...) [도치(Inversion)]
- (3) a. (Tom saw the car) and Max *did* too.

b. (Tom hardly saw the car.) Nor *did* Max.

[생략(post-verbal ellipsis)]

(4) (A: I don't believe Max saw the car.)

B: Max *DID* see the car. [강조(emphatic polarity)]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요소를 Quirk *et. al.*(1985: § § 2.48-9, 3.21-8)이나 Denison(1993a: 255) 등은 운영자(operator)라고 부른다.<sup>1)</sup> 현대영어에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는 범 조동사(modals)와, be동사, 그리고 have동사(의 일부 용법) 등이다.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조동사 *do*가 쓰이게 된다.<sup>2)</sup> 위의 용법 중 고대영어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쓰이는 용법은 (3a)뿐이다. 한편 고대영어나 중세영어 시기까지 쓰이던 *do*동사 용법 중 현대영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소멸한 '사역의 의미로서의 *do*동사(causative *do*)' 용법도 있다.

후기 중세영어 때부터 *do*동사의 여러 용법 중 일부가 단순 조동사의 용법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 단순 조동사 *do*의 출현에 대해서는 그 시기(date), 방언(dialect), 외국어의 영향(foreign influence), 언어 접촉(creolisation), 그리고 통사적인 출처(the purely syntactic sources)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주 많다. 이 논문에서는 통사적인 분석에 보다 비중을 두면서 단순 조동사 *do*의 기원을 살펴본다.

## 2. 고대영어의 don'do'

고대영어에서의 don'do'은 (a) 완전한 어휘 동사(a full lexical verb or a notional verb)로서 쓰였다. 어휘 동사로서의 *do*은 타동사로 'perform, accomplish'(OED b.6)의 의미나 'put, place'(OED b.1)의 의미로 쓰였고, 자동사로는 'act'(OED s.v. b.15)의 의미로 쓰였다:

1) Huddleston(1976: 333)은 위의 예문에서와 같은 운영자의 자질을 'NICE' 자질('NICE' properties: Negation, Inversion, Code(=post-verbal ellipsis), Emphasis의 약어(acronym))이라고 부른다.

2) 이런 *do*를 표현하는 용어도 다양하다; an empty operator 혹은 the default auxiliary(Denison(1993a: 255), periphrastic *do*, dummy *do*, dummy tense carrier, dummy operator 등. periphrastic *do*란 *do*가 본 동사와 나란히 쓰인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 조동사 *do*'라는 표현을 쓰겠다.

- (5) a. Uton...*don* hyne on þone ealdan pytt  
 'Let us *do*[=put] him in this old well' (*Gen.* 37.19)  
 b. þis he *dyde* eall for þes biscopes luuen  
 =this he *did* all for the bishop's love  
 'This he did all for love of the bishop  
 (c1123 *Peterb.Chron.* 1123.73)

(b) 이러한 어휘 동사의 용법에서 두 가지 새로운 용법이 생겨났는데, 첫째로는, 뒤에 올 동사(구)를 앞에서 미리 받아서 표현해주는 'anticipative (혹은 cataphoric use) *do*'의 용법이 있다:

- (6) utan *don* swa us mycel þearf is, habban æfre rihtne  
 geleafan  
 =let us *do* as us great need is, have(inf.) ever right belief  
 'let us do what is necessary for us, (i.e.) to have the true  
 faith...' (*WHom.* 7a 42)

이 때 do다음에 오는 동사는 do와 같은 시제형으로 나타난다(Denison(1993a: 260-1)의 [anticipative *do*+appositive V]유형).<sup>3)</sup> 다시 말해서 do동사는 그것이 대체하는 어휘 동사의 인칭, 시제, 법(mood) 등을 따른다.

둘째로는, 흔히 대동사(pro-verb, prop verb, substitutive or vicarious *do*)라고 부르는 경우(anaphoric use)로 앞에서 언급된 동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어휘 동사 대신 쓰이는 용법이다:

- (7) strenge getruwode, mund-gripe mægenes. Swa sceal man *don*,  
 þonne he æt guðe gegn þenceð longsumne lof  
 =(in) strength (he) trusted, hand-grip of might, as should/shall  
 one *do*, when he in battle to gain thinks long-lasting praise  
 'he trusted in strength, hand-grip of might, as one shall do,  
 when he thinks long-lasting praise in battle' (*Beo.* 1533-36)

---

3) do다음에 오는 동사가 원형 부정사로 나타나는 경우(Denison(1993a: 261-4)의 [anticipative *do*+infinitival V]유형)가 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이 두 가지 용법 모두에서 do는 문장의 다른 곳에 쓰인 어휘 동사를 대체하여 반복을 피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c) 세 번째로, do는 사역 동사로 쓰일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p æt* 'that'절이 뒤따르게 된다(*do+(NP)+that-clause* 'cause (NP) that NP should...'). 하지만 가끔 원형 부정사가 뒤에 위치하는 경우 (*do+(NP)+infinitive*)도 있다:

(8) *Do ð p æt p æt folc sitte*

'Make the people sit' (Mitchell(1985: 266))

(9) a. *And treowa he de ð færllice blowan and eft ra ð e asearian*

'And trees he does[=causes] to bloom suddenly and again to wither (HomU 34(Nap 42) 109)

b. *p e biscop of Wincestre...dide heom cumen p ider.*

=the bishop of Winchester...caused them come thither

'the bishop of Winchester...had them come there'

(c1155 *Peterb.Chron.* 1140.22)

그러나 (9)와 같은 부정사 구문은 (특히 (9a)처럼 목적어 NP가 없는 경우는) 고대영어에서는 아주 드물게 쓰였으며(Ellegard(1953: 17, 48), Visser(1963-73: § 1212)), Ellegard(1953: 54)나 Denison(1985: 46, 1993a: 279) 등은 대체로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한다.<sup>4)</sup> 단순 조동사 do는 바로 이 부정사 구문에서 쓰인 do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이 구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Denison(1985)은 이런 구문에서의 do의 의미가 분명히 사역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예문은 '에매한 do (equivocal do)'의 용법이라고 말한다.

---

4) 명사구가 없이 do다음에 동사가 바로 오는 구문을 Ellegard(1953)는 *do x* 구문, Visser(1963-73)는 *cdi*구문, Denison(1993a)은 *VI*구문으로 부르고 있고, 반면 do다음에 명사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는 구문에 대해서 Ellegard는 *do ac*구문(명사구가 대격(accusative)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Visser는 *cdsi*구문, Denison(1993a)은 *VOSI*구문이라고 부른다.

## 3. 중세영어의 do

고대영어 do동사의 세 가지 용법은 중세영어에 와서도 계속이 된다. 다만 중세영어 시기가 되면 새로운 용법이 추가되는데 바로 단순 조동사로서의 do의 용법이다. 단순 조동사 do(Visser(1963-73)의 pdi구문)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요소이지만 시제를 표현해 주는 기능을 한다.<sup>5)</sup> 이러한 용법은 중세영어 시기인 13세기에 남부 방언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중세영어 시기 동안의 단순 조동사 do는 주로 시에서 각운(rhyme)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쓰였을 뿐 산문에서는 중세영어 말기에 와서야 쓰인다.

이러한 단순 조동사의 용법 외에, 고대영어의 세 가지 do동사 용법 중 대동사로 쓰인 용법에서 명제의 진리를 강조하는 do동사(emphatic or affirming do)의 용법이 나온다(Engbolm(1938: 44-61)). 현대영어에서 강조의 do동사는 대략 세 가지의 용법이 있다(Quirk et. al.(1985: § §18.16, 18.56)):

- (10) A. to assert the truth of a proposition, or to mark a polarity contrast (e.g. ...but I DID lock the door)
- B. to give contrastive emphasis to the tense or lack of modality of a verb (e.g. I *did* and *do* take great care of it.)
- C. to give emotive or exclamatory emphasis)  
(e.g. You *do* make a fuss about things)

Denison(1993a: 266-7)은 A와 B 유형의 예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sup>6)</sup>

- (11) Loke ye, do not lye; and thow *do* lye, I shall it knowe wele  
=Look you(pl.) do not lie if you(sg.) lie I shall it know well  
(a1500(?c1450) *Merlin* 101.25)

---

5) do동사가 단순히 자체의 의미는 없이 시제를 표현해 주는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같은 문헌의 여러 가지 필사본 속에 [[do-시제] + 동사], [동사-시제] 형이 상호 교차되어 쓰인 것이 그 증거가 된다.

6) 강조를 나타내는 do동사를 문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여기에는 음성적인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12) it hath stonde, yit *doth*, and *euer shal*...in as gret pees and  
tranquillite as euer ded Cite

=it has stood, yet *does*, and *always shall*...in as great peace and  
tranquility as ever did (a) city

((1417) *Let.War France in Bk.Lond.E. III.ix 69.29*)

Ellegard(1953: 23ff., 121ff.)나 Traugott(1972: 139-40) 등은 이 강조의 do 동사가 구어체에서 강세를 받지 못해서 약화된 것이 나중에 단순 조동사 do로 재분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Traugott(1972: 139)에 의하면 do동사가 명제의 진리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동사의 가정법 어미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중세영어 기간 중에 가정법 어미가 없어지게 되자 보통 동사(the simple verb+Tense)가 종래에는 가정법 동사가 쓰여야 할 위치에도 쓰이게 되었다. 가정법 동사는 원래 불확실성(uncertainty)이나 미수행 행위(uncommitment)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가정의 상황에 단순 시제 동사가 쓰이기 되었기 때문에 진리 내지 사실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단순 시제 대신 [[do+Tense] + verb]의 형태가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Fischer(1992: 268)는 우선 구어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힘들고 단순 조동사 do가 쓰인 초기의 예들이 모두 시에서, 특히 강세가 없는 위치에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Ellegard나 Traugott의 분석을 반박하고 있다. Fischer는 또한 do조동사가 Celtic에서의 차용이라는 주장(Ellegard(1953: 119-20), Visser(1963-73: § 1415), Poussa(1990))이나,<sup>7)</sup> 불어의 [faire+infinitive] 구문의 영향이라는 가설(Ellegard(1953: 92), Visser(1963-73: § 1416))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단순 조동사 do의 기원을 논하기 위해서는 do동사의 (고대영어에서의) 세 가지 용법이 중세영어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완전한 어휘 동사에서 단순 조동사의 용법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어휘 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단순 조동사의 기능으로 재분석되기는 어

7) Poussa(1990)는 단순 조동사 do의 용법은 고대영어 시기에 영국인과 Celt 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영어에 도입된, Welsh의 [*Gwneuthur*'do'+verbal noun]의 통사적 차용(a syntactic calque)이라고 주장한다. 단순 조동사 do는 고대영어 시기에 이미 구어체에서 쓰였지만 문헌에는 중세영어 이후에 기록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반론은 Denison(1993a: 282-3)을 참조하기 바란다.

렵다. 다만 중세영어에 와서 어휘 동사의 목적어 명사가 굴절 어미의 소실로 인해 동사 적 요소(verbal elements)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13) To *doon* yow *ese*, and it shal coste nocht (CT I.768 [1: 770])

Cf. to *esen* hem and *doon* hem al honour (CT I.2194 [1: 2196])

그러나 이런 예에도 불구하고 Fischer(1992: 269)나 Denison(1993a: 275)은 이런 구문에서 단순 조동사 do의 용법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명사 목적어는 do와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13)과 같은 구문이 생겨난 것이 단순 조동사 do의 출현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보기도 힘들며, 또한 굴절 어미 소실에 따른 변화라면 단순 조동사 do가 명사 굴절 어미의 소실이 가장 빠른 북부 방언에서부터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북부 지역에서 가장 늦게 do가 단순 조동사로 쓰이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로, 대(체) 동사의 용법에서 단순 조동사 do의 용법이 나왔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뒤에 나올 동사를 미리 받는 'anticipative do'에서 do 조동사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anticipative do'다음에 오는 동사는 부정사의 형태로 뒤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Denison(1993a: 277)이 지적하고 있듯이 [do+infinitive verb]구문보다는 [do+appositive verb]유형이 훨씬 더 많았고, 설사 동사 어미의 탈락으로 그 구분이 흐려졌다고 해도 동사 어미 탈락이 가장 빨랐던 북부 방언에서 단순 조동사 do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용법이 단순 조동사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Denison(1985)은 대동사가 단순 조동사 do의 출처가 되기에는 그 수가 충분치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anticipative do'와 그 다음에 오는 동사 사이에는 절이나 구가 끼여 있어서, 단순 조동사 do가 본 동사의 부정사형을 지배하는 것처럼 do동사의 영향으로 부정사형이 쓰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14) So he *de ð* also ofte ase he ne mei mid openlich vuel, *ku ð en*  
his strenç ð e  
=So he *does* as often as he not can by open evil, *show* his  
strength

'This he does, whenever he cannot, show his strength by means that are clearly evil.' (Ancr. (Nero) 99.16-17)

분명하게 부정사 형태의 동사가 'anticipative do' 다음에 오는 예는 후기 중세영어에 들어와서 발견이 되는데 단순 조동사 do의 용법은 그보다 거의 200년 전부터 그 예가 나타나고 있다(Fischer(1992: 271)). 따라서 시기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세 번째로, 사역 동사 do가 있다. 이 용법에서 단순 조동사 do가 유래한다는 것이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분석이다. §2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역의 do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do+NP+infinitive...)의 do ac구문(내지는 cdsi구문)이 있다:

- (15) a. Þe king dede þe mayden arise, ...  
 'The king *did(=made)* the maiden *rise*' (Havelok(Ld)205)  
 b. he dede Davy sadillyn an oder hor  
 'he *caused* Davy *to-saddle* another horse'  
 (PL II.93.34 (1448))

이 구문은 후기 고대영어 시기에 생겨났으나 중세영어 시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널리 쓰인다. 반면 do x 구문(내지는 cdi 구문)에서는 명사구 목적어가 없다(cf. (16)-(17)). 사역의 do동사는 현대영어의 get이나 have 정도의 의미를 지니며 일종의 소절 보문(small-clause complements)을 취하는데, 그 소절의 주어가 명사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 범주(an empty category)로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목적어가 있을 때는 do동사가 일종의 예외적 격 표지 동사(exceptional case-marking verb)가 되어 그 목적어에 격을 부여하고 그 목적어가 받는 의미 역( $\theta$ -role)은 하위 절의 동사에게서 온다.

명사구가 없는 do x 구문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서 우선 do가 사역의 의미를 가지며 그 하위 절의 주어는 빈 대명사 주어(an empty pronominal)인 구문이 있다:

- (16) They shall putt or *done* [PRO putt in any certaine place]  
 =They shall put or do put in any certain place



'They shall put or cause (someone) to put in any certain place  
(c1475 *Gregory's Chronicle*, p.145)

여기에서의 PRO는 PRO<sub>mb</sub>가 된다(cf. (25)). Roberts(1993)는 이 구문이 로맨스(Romance)어의 'faire-par' 구문과 비슷하다고 해서 FP구문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do가 사역의 의미를 (거의) 나타내지 않으며, 보문의 주어가 주절 주어로 인상되어 보문 주어 위치에는 흔적(trace)이 자리하는 소위 'Raising do' 구문이 있다:

- (17) They worschepped the some whanne he, *dede* [t<sub>i</sub> arise].  
=They worshipped the sun when he *did* arise.  
(Kroch(1989b))

FP구문과 Raising구문의 유일한 차이는 보문의 주어가 주절 주어와 같은 reference를 가지느냐 아니면 arbitrary reference를 가지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

- (18) A noble churche heo *dude* a-rere  
=A noble church she *did* raise  
'She built a noble church' or 'She had a noble church built'  
(*SLeg.*(Ld)4.118)

Traugott(1972: 140)는 do ac구문에서 그 목적어가 부정 (대)명사 (indefinite (pro)nouns)이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 did someone saddle a horse → I did saddle a horse. 즉 do ac구문이 do x구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치 I wanted to do it에서 do it의 의미상 주어가 I로 해석이 되듯이, 보문 절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someone같은 제 3자에서 문장의 주어로 재해석된다. 만약 I did pay them과 같은 구조에서 pay의 의미상 주어가 I가 되면 이 문장은 사역의 의미를 상실하고 I did indeed pay them과 같이 'What I am saying happened did indeed happen'의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그러한 예로 여기서의 ded 'did'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19) and she *ded aske* me after my mater Berney, and I told here  
howe he was hurt. (PL II.94.7 (1448))

즉 Traugott는 사역 동사 do에서, 특히 do x구문에서, 강조 동사 (affirming do)의 용법이 나오고 이 강조 용법의 do에서 다시 단순 조동사의 용법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강조 용법의 do와 부사 truly, indeed 등이 같이 쓰이면 do의 의미는 그 만큼 약화되어 단순 조동사 화하기가 쉬워진다. 다시 말하자면 I did pay them의 형태는 'I caused (someone) to pay them'의 의미에서 'I say I truly paid them'의 의미를 거쳐 'I paid(=did pay) them'의 단순한 의미로까지 바뀐다는 것이다.

Ellegard(1953)도 Traugott와 같이 do x구문에서 단순 조동사 do의 용법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Ellegard(1953: 29)는 do x구문이 소위 'permutation'이란 의미 재해석 과정(the semantic reanalysis)을 거쳐 단순 조동사 do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0) Henry ... þe walles *did* doun *felle*, þe tours bette he doun  
=Henry ... the walls *did* down *fell*, the towers beat he down  
'Henry ... felled down the walls, he beat down the towers.'  
(Mannyng *Chron.Pt.2*(Petyr)97.22)

bette'beat'가 'cause to beat'뿐만 아니라 그냥 'beat'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칭적인 표현을 이루는 felle도 'to fell'의 의미가 아닌 'cause others to fell'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do가 가진 'cause to...' 라는 사역의 의미는 사라지고 do는 의미적으로 빈(empty) 동사가 되면서 단순 조동사 화할 수 있다. did 'caused'+felle 'to fell/be felled'가 did 'past tense'+felle 'cause to fell/be felled'로 바뀌는 것이다. do가 가진 사역의 의미가 그 다음의 본 동사에게 전달이 되면서 본 동사가 사역 동사가 되고 대신 do동사는 의미적으로 빈 조동사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Visser(1963-73: § 1417)는 fell과 같은 동사가 사역의 의미(즉 누구를 시켜서, 혹은 어떤 작용을 야기하여 무엇인가를 무너지게 만들다)와 비 사역의 의미(직접 무너뜨리다)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Denison(1985: 48, 1993a: 279)은, 현대영어 동사 have나 get등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의미상의 애매성(equivocation)은 허용이 된다

고 말하고 있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get/have는 'doing something oneself'의 의미와 'having it done by another'의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

(21) I will *get/have* the work finished on time.

그래서 특히 사역의 의미가 약하고 그 의미가 애매한 (20)이나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단순 조동사 do의 용법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Ellegard(1953)나 Traugott(1972)의 분석이다:<sup>8)</sup>

(22) a. His sclauyn he *dude* dun legge

'He laid down his pilgrim's cloak' (*Horn* (Cmb) 1057)

b. Gode paniers *dede* he make, : On til him, and o per prinn:  
Til hise sones

=good baskets *did* he make, one for himself and others three  
for his sons

Traugott(1972)는 do x구문이 사역의 의미를 잃고 단순 조동사 화하는 과도기에 쓰인 do+V의 구문에서의 do가 강조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강조'의 뜻에 비증을 둔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Ellegard(1953)는 과도기에 쓰인 do+V에서 do는 사역/비 사역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라고 '애매성(equivocation)'에 보다 비증을 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Ellegard도 비 사역의 의미인 do가 다소 강조의 뜻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Denison(1985, 1993a: 278-9)은 Ellegard(1953)분석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사역외 의미가 비 사역의 의미로 변화되는데 대한 동기(motivation)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껏해야 시인들로 하여금 각운(rhyme)이나 운율(meter)을 맞추는 도구를 마련해준 정도 외에는 별 다른 언어학적 혹은 구조적 이유가 없다. 산문이나 일반 구어체에까지 do조동사의 용법이 확산되는 데에 대한 이유로 보기는 힘들다. 둘째, Ellegard는 [causative do] > [equivocal do] > [periphrastic do]의 발달과정(Visser의

---

8) do+V가 사역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단순 조동사로서 쓰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구문을 Engblom(1938: 71)은 'ambiguous do'라고 부르고 Ellegard(1953)는 'equivocal do', Visser(1963-73)는 'edi유형', Denison(1993a: 260)은 'vague do'로 부르고 있다.

용어로는 *cdi* > *edi* > *pdi*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causative do*]구문은 그 예가 아주 드물다(Denison(1985: 47)). 즉 분명한 사역의 의미를 가진 *do* x구문이 의미 변화를 거칠 만큼 충분한 빈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equivocal do*]구문과 [*periphrastic do*]구문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난다. Denison(1985)은 *do* x구문을 그 의미에 따라 'causative', 'equivocal', 'periphrastic'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모두 *do*+infinitive라는 하나의 통사 구문으로 통합이 가능하며, 문맥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1985: 53, 1993a: 279). '행동의 수행자가 누구냐? - 화자냐 제 3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행위자가 화자이면 *do*는 단순 조동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do*는 사역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Denison(1985, 1993a)은 *do*+infinitive구문이 초기에는 완료 시상(a perfective or completive aspect)을 나타냈을 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다.<sup>9)</sup> 그 근거로 여러 언어에서 *do* 동사가 완료 시상을 표시하는 요소로 발달되는 예가 있고, 고대영어에서 동사의 시상(aspect)을 표시해 주던 기능을 하던 접두사 체계(prefixal system)가 소멸하면서 중세영어에 접어들면서 시상을 표시할 수 있는 문법 장치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후기 중세영어에서의 특이한 *do*용법 중의 하나로 *do*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아닌 과거 분사형을 쓰는 구문이 있다:

- (23) yet ha *de p* mani time *maked* of watere wyn gostliche ...  
 so ha maket of *p o* watere, wyn  
 =yet he *does* many-a time *made*(p.p.) from water wine  
 spiritually ... so he makes from the water wine  
 (c1275 *Ken.Serm.* 129)

특히 *do*동사 자체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형인데 그 다음에 다시 과거 분사형 동사를 취할 수도 있었다:<sup>10)</sup>

9) Smith(1996)도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the *do*-construction seems to be developing as a means of marking aspectual distinctions

10) 현대영어에서 (어휘 동사가 아닌) *do*동사는 비시제형(non-finite forms)으

- (24) a. ...wi þ michel honoure, þ at he hade *done made* in  
remembrance of þe Britons...  
(*Brut*-1333(RwIB.171)64.31-65-1)
- b. '...but God of his mercy/ And youre benyngne fader  
tendrelly/ hath *doon* yow *kept*' (*CT* IV.1096-8[8: 1096-8])

이런 구문은 사역 동사(인 do)와 완료 시상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가 된다.<sup>11)</sup>

Fischer(1992: 274)도 do x구문이 완료 시상을 나타낸다는 견해를 옹호하면서, 고대영어 사역 동사 *hatan* 'to order'를 분석한 Royster(1918: 84)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the verb of causing predicates the accomplishment of an act that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exercise of an influence of someone or something upon some person or some object. *The causative verb affirms accomplished action; it is a perfective verb.*

고대영어 사역 동사 *hatan*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아닌 과거 분사가 오는 이유도 '명령을 하는 행위(the giving of the order; *hatan*+inf.)'에서 '명령의 완료(the accomplishment of it; *hatan*+past participle)'로 화자의 심리 상태가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래 사역 동사였던 do가 완

---

로 쓰일 수 없다. 그러나 중세영어 시기에는 do가 단순 조동사이면서도 과거 분사형 뿐만 아니라 부정사형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Denison(1993a: 269-70)):

- i. I shall *don* hengen hem. (c1300 *Havelok* 2545)
- ii. Ye may thereof *do make* a keye. (*Rom. Rose*, c1400: 2081)
- iii. He ... bade him ... *Havelok* wel yemen and his wif, : And wel *do* wayten al the nith  
=He ... bade him ... *Havelok* well look-after and his wife and well do watch-over all the night  
'He ... asked him ... to look after Havelok and his wife well and to guard them well all night.' (c1300 *Havelok* 1747)

11) 이 구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Ellegard는 교육받지 못한 계층의 용법으로 생각했지만 Mustanoja(1960: 605-6)는 그런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Visser(1963-73: § 1414a)는 이런 구문의 do도 일종의 'anticipative do'로 분석하고 있다.

료 시상 동사로 쓰이게 된다는 Denison(1985: 55)의 분석은 설득력을 가진다. 만약 초기의 *do* 동사가 완료 동사였다면 'accomplishment(telic)'나 'achievements(punctual)'와는 쓰일 수 있지만 'states'나 'activity'를 나타내는 동사와는 같이 쓰일 수 없는 공기 제약(co-occurrence restrictions)을 보일 텐데, 실제 *do*동사는 *be/have*동사나 *법 (조)동사*와는 같이 쓰이지 않는다(Denison(1985: 54)).<sup>12)</sup> 따라서 *do*가 사역 동사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시상 동사를 거쳐 단순 조동사가 되었다는 설명은, *do*동사가 단순 조동사로 변화된 후 그 용법이 현대영어 화되는 과정에서 *be, have, 법 조동사*와는 같이 쓰이지 않는 점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초기의 *do+infinitive*는 이렇게 완료의 의미(내지는 사역의 의미, 혹은 무의미)를 나타내면서 통사적으로 두 개의 절이 포함된 구조를 가진다:

(25) NP [DO [<sub>S'</sub> [<sub>S</sub> PRO<sub>arb</sub> VP]]]

물론 이 단계에서의 *do*는 아직 그 범주가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do*는 일반 동사로서의 완전한 패러다임을 보인다. 주석 10과 (24)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사형, 과거분사형이 16세기까지 쓰인다. 그러나 초기 현대영어 시기에 이르러 완료의 의미가 탈색이 되고 VOSI구문이 소멸하자 (25)와 같은 구조는 고립이 된다. 특히 *법 조동사*와의 유추 작용으로 *do*가 조동사 화하면서 통사적으로도 하나의 절을 가진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do*가 조동사로 재분석이 되자 일반 동사로서의 패러다임을 상실하여 16세기 이후로는 부정사형, 완료시제형 등이 사라진다. Roberts(1993)도 FP *do*이든 Raising *do*이든 간에 중세영어의 *do*는 아직 동사이지 조동사는 아니며, *do*가 조동사가 되는 것은 초기 현대영어 시기인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법 조동사*의 범주 변화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보문 구조(S')가 사라지고 보문의 PRO주어나 흔적이 없어지면서 [...*do*+VP...]의 연속 배열을 가진 조동사 *do*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Ellegard의 equivocal *do*나 Denison의 aspectual *do* 등은 여전히 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Ellegard(1953), Traugott(1972), Denison(1985, 1993a), Roberts(1993) 등은 모두 *do* x구문을 단순 조동사 *do*의 기원으로

12) accomplishments, achievements, activities, states의 구분은 Vendler(1967: 97-121)의 용어이다.

분석하고 있다. 다만 그 변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Ellegard는 애매한 의미 해석 단계를 거쳐 단순 조동사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Denison은 사역 구문에서 완료 시상 동사를 거쳐 단순 조동사로 발전된 것으로 분석한다.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do x구문이 단순 조동사 do의 기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4. 초기 현대영어의 do: 조동사 do의 규칙화

초기 현대영어 시기에 오면 단순 조동사 do는 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글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고 문장의 종류에도 관계없이 수의적으로(optionally) 쓰이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이 되면 긍정 평서문에서 단순 조동사 do가 쓰이는 빈도는 줄어들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쓰이는 횟수는 점점 늘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구문에서 do동사는 여전히 수의적인 요소이고 긍정 평서문에서 do가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은 후기 현대영어 시기인 18세기에서의 일이다.

의문문에서는 본 동사가 이동하는 것보다 do동사가 삽입된 후 do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영어 문장의 기본구조인 (v)SV(O)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선호된다. 주어가 여전히 동사의 앞에 위치하며, 다른 조동사가 쓰인 문장(예; I *wil* not force any man; I *have* not dedicat this ... treatise)과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 본 동사가 이동하면 VSO가 됨으로써 문장 의미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된다. 즉 주어와 목적어가 인접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호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26) a. Alas wherefore lyghteth me the sonne...[?]

(1503-5 *Val. & Orson*(W) 24.23)

b. Of whome receyueth the sonne his course?

(1509-21 *Fischer English Works* 195-6)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의 경우에는 do의 사용이 타동사 구문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Barber(1976: 265-6)에 의하면, 의문문에서 자동사 구문보다는 타동사 구문에서 do가 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구문에서는 SV가 VS가 되나 vSV가

되나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SVO에서 VSO가 되면 S와 O가 인접해 나타나기 때문에 (비록 어순이 고정된 이후이긴 하지만), 특히 굴절 어미가 없는 두 명사구가 인접해서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대신 do동사를 씀으로써 vSVO어순을 유지하는 것이다. Kroch, Myhill & Pintzuk(1982)에 의하면 주어가 일반 명사구인 경우에 인칭 대명사 주어가 있는 문장보다 do를 더 많이 쓰게 된다. 왜냐하면 다음에서 보듯이 주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가 동사에 대한 접어((en)clitics)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와의 구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13)

- (27) But for what cause [slewyst *thou*] thys nyght my modyr's squyar?  
 'But for what reason did you kill my mother's squire tonight?' (a1470 Maroly, *Wks.821.1*)

반면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비록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두 개의 접어 대명사가 연속해서 오기 때문에 옴운론적으로 상당히 어색하다:

- (28) a. Toke *ye him* in the quenys chambir?  
 'Did you capture him in the queen's chamber?'  
 (a1470 Maroly, *Wks.1174.6*)  
 b. A, fayre sir ... know *ye me* nat?  
 'Ah, good sir ... do you not know me?'  
 (a1470 Maroly, *Wks.975.6*)

그래서 주어만 인칭 대명사인 경우보다 do의 사용빈도가 높다. 의문문에서 do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궁정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단순 조동사 do가 의문문에서 쓰이기 시작한지 약 200년 정도 후에는 반드시 do동사를 써야 하는 것으로 용법이 정립된다.

부정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do동사가 삽입되어 그 다음에 not이 올 수도 있고 do없이 본 동사의 다음에 바로 not이 올 수도 있었다:

---

13) 고대영어에서 중세영어 시기까지 영어의 인칭 대명사는 접어로 분석된다.



(29) O *do* not slander him.<sup>14</sup> (*Richard III*)

(30) a. (he) *seeth* not the vse.

b. I *say* not this

그러나 점차 부정문에서도 do조동사를 쓰는 용법이 선호된다. 이는 의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들과 동일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항상 본 동사와 목적어가 인접해서 나타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목적어의 앞이 아닌 본 동사의 앞에 부정 요소가 위치함으로써 목적어 부정(object negation)이 아닌 문장 부정(sentence negation)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별 동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do와 잘 쓰이지 않는 동사들이 있었다. 부정문에서는 care, come, doubt, know, mistake, speak와 trow 'to think, believe'와 같은 동사가 do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 현대영어 시기가 끝날 무렵까지 I know not, if I mistake not같은 형태로 계속 쓰였다. 의문문에서는 come, dare, do, have, hear, mean, need, say 그리고 think같은 동사가 do와 같이 쓰이지 않아서 Say you so? What think you? 같은 표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Barber(1976: 266)).

초기 현대영어에서는 긍정 평서문에서의 do도 수의적이었다. ate를 쓰느냐 did eat를 쓰느냐하는 문제는 운율(metre이나 각운(rhyme)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 라틴어에서 도입된 -ate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do동사를 써서 doth illuminate라고 표현하는 것이 동사 어미를 붙인 illuminateth보다 발음상 더 낫다. 16세기 동안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그리스어나 라틴어 중 어려운 다음절 단어(inkhorn terms)를 많이 차용할 때 이런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Smith(1996: 160) 역시 다음절 어 동사의 경우에는 굴절 어미를 붙이는 것보다 do동사를 쓰는 것이 발음상/음율상(prosodic) 더욱 선호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용법들이 다른 동사들에게 유추 작용을 일으켜 do동사가 더욱 더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Smith는 동사의 시체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조동사 do를 쓰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몇몇 강 변화 동사(strong verbs)의 경우 고대영어에서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모음의 차이에 의해 분

14) 부정 명령문에서의 do는 16세기까지는 긍정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보다 더 빈도가 낮게) 거의 쓰이지 않다가 1600년경을 전 후로 급 반동하는 형세를 보이고 결국은 부정 평서문과 같은 정도의 빈도를 보이게 된다.

명히 구분이 되었는데(예; *etan* 'eat' vs. *æt*(단수 과거), *æton*(복수 과거)), 15세기경이면 *e*와 *æ*가 통합이 되고 *-an*이나 *-on*과 같은 동사 어미도 쓰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에는 *did eat* 'ate'를 써서 과거 시제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가끔 *do+V*형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지만 모든 긍정 평서문에서의 *do*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do*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do*동사를 쓰는 것이 완전히 규칙화되고 또한 긍정 평서문에서는 *do*동사를 쓰지 않게 되는 18세기 이후에야 규칙화된다.

Barber(1976: 265)에 의하면 16세기 초반까지 조동사 *do*를 쓰는 것은 구어체(*colloquial style*)가 아닌 문어체(*literary style*)의 표시였다. 그러다가 *do*동사의 용법이 규칙화된 후에는 규칙화된 용법을 쓰는 것이 구어체의 특징이 되고 문어체에서는 규칙화되지 않는 그 전 단계의 용법이 쓰였다. 다시 말해서 구어체일수록 긍정 서술문에서는 *do*를 쓰지 않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do*를 많이 쓴다는 것이다. 이는 *do*동사의 규칙화에 글(*writing*)보다는 말(*speech*)이 더 크게 기여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sup>15)</sup>

## 5. 맺는 말

이 논문에서는 Ellegard(1953), Traugott(1972), Denison(1985, 1993a), Roberts(1993) 등의 분석을 통해 *do x*구문이 단순 조동사 *do*의 기원임을 살펴보았다. 그 변화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do x*구문이 단순 조동사 *do*의 기원이라는 점은 결론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do*동사는 16세기 중엽부터 현대영어처럼 규칙화하기 시작해서 1700년경이 되면 그 용법이 거의 완성이 된다. 처음에는 문장의 구조에 관계없이 쓰일 수 있는 수의적인 요소였는데, 점차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반드시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강조의 뜻이 없으면 쓰일 수 없는 요소로 변화가 되었다. 이러한 용법의 확립에 대해 Lee(1993, 1994)는 경제성의 원리라는 통사적인 분석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외에도 음운론적인 요인이나 문체

15) *do*동사의 규칙화 과정을 경제성의 원리(*the Economy Principle*)로 설명하는 필자의 입장(P. H. Lee(1993, 1994)참조)에서는, 글보다 말이 더 경제성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볼 때, Barber의 관찰을 필자의 분석을 지지하는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싶다.

상의 요인, 그리고 언어 접촉의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 Barber, C. 1976. *Early Modern English*. Andre Deutsch, London.
- Denison, D. 1985. The Origins of Periphrastic Do: Ellegard and Visser Reconsidered. In Eaton, R., Fischer, O., Koopman, W., and F. van der Leek. eds. *Papers from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10-13 April 1985*.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41.) John Benjamins, Amsterdam, pp.45-60.
- Denison, D. 1993a. *English Historical Syntax*. Longman, London.
- Denison, D. 1993b. Some recent changes in the English verb. In Gotti, M. ed. *English diachronic syntax*. Guerini, Milan (Collana Blu, 20), pp. 15-33.
- Ellegard, A. 1953. *The auxiliaries do: The Establishment and Regulation of Its Growth in English*. (Guthenberg Studies in English, 11.) Almqvist & Wiksell, Stockholm.
- Engblom, V. 1938. *On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Auxiliary 'do'*. (Lund Studies in English, 6.) C. W. K. Gleerup, Lund/Williams & Norgate, London/Levin & Munksgaard, Copenhagen.
- Fischer, O. 1992. Syntax. In N. Blake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Vol 2 1066-14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207-408.
- Huddleston, R. D. 1976. Some theoretical issues in the description of the English verb. *Lingua* 40, pp. 331-83.
- Huddleston, R. D.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Kroch, A. 1989a. Function and grammar in the history of English periphrastic do. In Fasold, R. and D. Schiffrin eds. *Language Change and Variation*.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52.) John Benjamins, Amsterdam.
- Kroch, A. 1989b. Reflexes of Grammar in Patterns of Language Chang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 pp. 199-244.
- Kroch, A., Myhill, J., and S. Pintzuk. 1982. Understanding do. *Papers from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4, pp. 282-94.
- Lee, Pil-Hwan. 1993. *A Diachronic Study on Word Order in English: The Minimalist Approach*.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Pil-Hwan. 1994. *Do-support and the Economy Principle*. I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4.2*. The Korean Generative Grammar Circle, Seoul, pp. 419-43.
- Poussa, P. 1990. A Contact-Universals Origin for Periphrastic *do*, with Special Consideration for OE-Celtic Contact. In Adamson, S., Law, V. A., Vincent, N., and S. Wright eds. *Papers from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6-9 April 1987*.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65.) John Benjamins, Amsterdam, pp. 407-34.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S.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 Rissanen, M. 1985. Periphrastic *do* in affirmative statements in early American English.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8, pp. 163-83.
- Rissanen, M. 1991. Spoken language and the history of *do*-periphrasis. In D. Kastovsky ed. *Historical English Syntax*. (Topics in English Linguistics, 2.) Mouton de Gruyter, Berlin.
- Roberts, I. 1993. *Verbs and Diachronic Syntax: A Comparative History of English and French*.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Royster, J. F. 1918. The causative use of *hatan*.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7, pp. 82-93.
- Smith, Jeremy. 1996. *An Historical Study of English: Function, Form & Chang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Traugott, E. C. 1972. *The History of English Syntax: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English Sentence Structur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 Visser, Th. 1963-73.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4 Volumes. E. J. Brill, Leiden.

573-718 전북 군산시 임피면 율하리 727

호원대학교 영어과

E-mail: lph@sunny.howon.ac.kr

Fax: +82-654-450-7450